

##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을 통한 강의 개선 선수도 초보자도

김 경 주\*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에 참석해 강의 시연 종인 김경주 씨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국어과의 교수 학습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마이크로티칭〉의 목적인 ‘수업(강의) 분석과 개선’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잘하는 ‘주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초보자들’과 함께 자신의 수업을 시연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초보자들’과 똑같다.

‘수업(강의) 분석을 통해 수업(강의)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남을 가르치기에는 나 자신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 역량이라는 것은 단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가르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상명대 · 경기대 강사.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전공 덕분에 내가 강의 시간에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사범대생이나 교육대생들 혹은 교직 이수자와 같이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며 어떤 경우엔 이미 교사인 경우도 있다. 강의 내용도 국어 교육론, 국어 교재 연구 및 교수법, 독서지도론, 국어 표현론, 국어 이해론과 같이 국어 교육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과정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강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의 방법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어 교수법’ 같은 강의 시간에는 내가 보여주는 강의 행동이 내가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구현하는 적절한 교수 행위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검증 받게 되니 앞에 서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등에 땀이 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곤혹스러움과는 별개로 강의는 진행해야 한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교수 전략, 강의 기법과 같은 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때 내가 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부터 3년여를 참여한 ‘교실 관찰 연구’의 경험에서 비롯한 ‘수업 분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교사의 수업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수업 내용과 진행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것으로 교사의 강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여름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 연수에서 이 방법을 현장 교사들에게 적용하게 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렇다면 내 강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개선되고 있을까? 내 강의를 녹화해서 나 혼자서만 다시 본 일은 있으니 아주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과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강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기회는 거의 없다. 그러나 나처럼 자신의 강의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강의를 분석하게 될 입장이라면, 강의 분석 과정을 분석자가 아니라 분석 대상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일 것이다. 아무리 신중하고 사려 깊은 분석자라고 해도 분석 대상이 느끼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의를 잘하고 싶은 교사’로서, 또 ‘수업 분석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의 욕심이 교수학습개발 센터의 <강의법 과정>에 참여하여, 일사천리로 마지막 <마이크로티칭 워크숍> 과정까지 마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용기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참여자들에게 어떤 인지적·정의적 효과를 주는가 하는 것까지도 보고 싶다는 욕심이 더해진 상태로 워크숍을 예약하고, 지시에

따라 10~15분 정도의 시연 강의를 준비하니 실제 내 심리 상태는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실제 강의 촬영과 그것을 다시 돌려보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적절히 얼버무려 부족한 부분을 감춘다고 감췄지만 내내 가장 내밀한 곳을 드러내고 있다는 부끄러움은 면할 수가 없었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과정을 끝내고 분석자로부터 내가 가진 문제와 그 대안을 조언 받으면서 ‘조금은 더 적나라하게 단점을 드러내야 했는데’라고 느낀 것은 분명 나에게 유익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을 다루는 분석자 및 분석 내

용에 있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와 분석 준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수업(강의) 분석을 다루어 온 연구자의 입장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에 참여한 때문에, 이 글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읽혀질지 조금은 두렵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수’도 ‘초보자’와 같은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 방법이 그에 대한 유익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❸